



2000년
3월 15일
제 19 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 전 시민 전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 조남진 편집인 :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21세기 첫 3·1절 연합예배 성대히 드려 ...

- 초청강사 정영관목사 1천5백명 참여 은혜충만 -

황영한 춘천기독교연합회(춘천침례교회 담임)는 2000년 새해 첫 번 3·1절연합예배를 마련하고 3월1일 오후7시 석사강교회 회당에서 1500여명의 교역자와 평신도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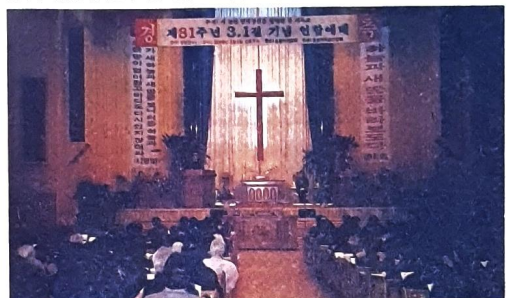
이날 예배에는 전례없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참석하였고 장관계 인사들이 동참하여 3·1정신을 기리며 하나님앞에 감사하는 뜻 깊은 예배가 되었다. 3·1정신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살신성인의 애국애족 정신임과 동시에 기독교정신이다.

당시 신앙선배님들은 민족대표 목숨을 걸고 앞장섰으며 전국에서 적극 동참했다. 그들은 비탄에 빠진 민족을 이끄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한 힘이 있었다.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은 어떠한가. 자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은 분산된 역량을 결집, 하나의 교회로서 시민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일을 하자는 것 일 것이다. 분산된 교회로써 결코 시민들을 인도할 수 없다. 시민들은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1연합예배는 차관식 목사(제일강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장로연합회장 허종구 목사(영광장로교회)와 한 군 목사(평화장로교회)의 특별기도, 윤철중 목사(중앙성경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초청강사 정영관 목사는 '3·1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한국교회'라는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의 나라사랑을 일깨워주고 마음속 깊이 새겨 실행해야 할 주옥같은 내용이었다.



성경 2233개 언어로 번역

세계성서공회 연합회(UBS)는 1999년 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족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가 2233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1998년 말보다 21개 언어가 늘어난 숫자이다.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6500여개의 언어 중 성경전서가 번역된 수는 371개 언어이고, 신약전서는 960개 언어다. 그리고 단편만 번역된 수는 902개 언어에 이른다. 새로 번역된 성경은 15만명의 부족을 위한 차드의 아즈메니아어 성경전서, 84만명의 부족을 위한 수단어의 누에르어 성경전서, 인도네시아의 120만명의 부

족을 위한 파파다이어리 성경전서 등이 있다. 신약전서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도의 마링어, 솔로몬 군도의 온통자바어, 그리고 옹부운 구어 등이 번역됐다.

단편으로 번역된 언어는 모두 19개로 파키스탄 성서공회가 닥키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편찬했고 방글라데시성서공회가 500만명의 부족어인 사용하는 신티어로 누가복음을 출간했다.

UBS는 현재 708개 언어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45개는 제2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성경번역 현황

지역별	단편	신약	신구약	합계
아프리카	218	267	142	627
아시아	228	212	113	537
대양주	172	194	30	396
유럽	106	29	62	197
중미	41	25	7	73
중남미	135	233	16	384
기타	2	0	1	3
합계	902	960	371	2233

감리교단 신문 "기독교타임즈" 재창간

- 2월 16일 재창간, 1889년 아펜젤러목사 창간, 주간지 -

감리회 주간신문인 "기독교타임즈"가 지난 2월26일 재창간 기념호를 발행하였다. 「기독교타임즈」는 1889년 아펜젤러 목사가 창간한 교회지와 1897년 창간한 한국 최초의 주간신문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그 뿌리를 두며 지난해 임의회에서 주간신문 관련 장

정 개편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번엔 재창간하게 되었다.

「기독교타임즈」의 사장은 김태선 장로(경기연회)가 선임되었으며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서 정지창 목사를 임명했다.

새천년 첫 부활의 새아침 연합예배 드린다

오는 4월23일 아침5시 춘천시청강장에서 춘천지역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2000년 새해 첫 부

활 아침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죽은 믿음에서 새로운 믿음을 소유하여 자신과 교회,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흥천 기독교문화 전통 세운 밀알선교회

- 성가합창 중창 발표회 9년째, 초교과 교회대상 -

흥천 밀알선교회(회장 권오정)

는 기독교찬양 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1회 지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찬양발표회를 열어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해 달란 찬양문화와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90년3월 10일 창립한 부부 모임을 통해 지



역교회의 찬양문화가 이와같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지켜지고 있다는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흥천지역의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독교문화도시 흥천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2월26일 오후2시 만민강교회당(양평관목사)에서 14개 초교과 교회 찬양단 등 3백여명이 참가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

양발표회를 가졌다. 서울에서 온

“은총부부”의 시련23년 특별 찬양은 감사와 은혜를 더 해 주었고 양평관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할렐루야)를 강조했으며 신자들의 생활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찬양이 동수를 가리는 경연대회가 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세상음악 전문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찬양에 대한 교육적인 말씀을 했다.

대상(합창)-동부교회 금상(합창)-회명교회(중창)-중앙교회 은상(합창)-창촌교회(중창)-회계교회 동상(합창)-중앙교회(중창)-화북한교회 정려성(중창)-사자군인교회(중창)-회계교회

춘천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

예수전도단 춘천직장인 사역은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경공부와 강의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참된 예배자로 세우며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게 하고 나아가 직장복음화 및 세계 선교에 헌신토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정기적인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 모임대상 - 하나님을 알고가고자 하는 직장인 및 일반인
- 기간 - 4월 10일(월)~8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7시~9시
- 장소 - 춘천중앙강교회 유디기관 4층
- 회비 - 전세기간 4만원
- 접수마감 - 선착순
- 신청방법 및 문의 - 회비는 온라인 통장으로 송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해서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접수됩니다.
- ①온라인 송금-②전화접수 ☎252-11280-③신청완료
- * 우체국 계좌번호 202267-0043439(예금주:정영지)

오늘의 묵상

나는 영원히 살테야

월남 이상재 선생은 YMCA운동의 선구자였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절절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테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만날때마다 살려주셨

다. 회당장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다. 죽은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십일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은 살아난다. 생명을 얻은 우리의 심령은 육신이 무너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세계로 옮겨가는 것 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죽어가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명심하자!

성시화 사역을 매월 돕는 아름다운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을혜교회



담임목사 지용찬



본당주최 찬양회, 기도회, 성경연구회, 영성훈련회, 성가대

주소 : 200-130 춘천시 은의동 65-10
사무실 : (0361) 257-7141

대한예수교 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은주

주소 : 200-130 근화동 713-5번지
사무실 : (0361) 257-7141

기독교대한 양문순복음교회

담임전도사 김길홍

주소 : 200-161 후평1동 엘리트APT 201-401
사무실 : (0361) 251-5098

대한예수교 방주장로교회

담임목사 박명자

주소 : 200-092 춘천시 효자2동 산26-1
사무실 : (0361) 261-5218

기독교한국침례회 열린침례교회



담임목사 신성균
전도사 김재복, 손우현, 서정학



주소 : 200-190 춘천시 은의동 65-33
사무실 : (0361) 253-7227

사설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을 만드자

우리가 살고있는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분의 통치하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주의적 신앙과 교권주의로 폐곡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질서와 예절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속박을 풀고 해방을 주셨다.

율법에 구속되고 신분에 눌림당하고 정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벗겨주는 해방자로 섬기는자의 모습으로 백성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교회의 기본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있는것 직접 입법행정사법부의 모든 공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책무를 다할 때 존재가치를 지니게 되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된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위에 군림하고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일삼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단결을 만들고 목적을 높여 국회의원다운 신령이 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면서 만일, 그들

이 교회로 그 시선을 돌린다면 피출되어야 할 성도들의 명단은 얼마나 될 것인지가 궁금하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늘을 우러러 한심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겠다.

교회와 신자들은 우리 사회의 양심의 보루로써 시민들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고수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있어도 기독교인만큼 변을 일체내고 나의 귀중한 투표권 필요하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행사해야 하겠으며 국회의원이 된 후에 실망을 주는 사람에게는 차기에 필히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나 한표가 당락을 결정하는 열쇠인 것을 잊지않고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자.

건강한 기독교 가정교육 시급하다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려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최우선권으로 두고 실행해야 한다. 실행없는 신앙생활은 복음을 가져 악재사리로 당고 다닌거와 같다고 할 것이다. 독실한 신자 같지만 가까이서보면 이미테이션(imitation)인 신자가 많다.

오늘 우리 사회가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것은 메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는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때 부패한 사회를 치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이 병들고 죽게된다. 그것은 소금이나 그 특성을 잃었을 때 쓸모없어 길가에 버려지는것과 같다. 복음의 특성은 인간을 부패하게하는 죄악을 깨닫고 소금의 역할처럼 복을 것을 막아 바르고 새롭게 한다.

3.1운동에 앞장섰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며 금주금연,물산정려운동에 솔선하여 나라 경계를 살리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직시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치유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옛날 니느웨성은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세대에나 요나와 바울같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교회와 나자신과 교회에 대하여 열거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착하는 것은 죽은 모습인 것이며 이러한 신자는 성경에 손을 얹고 거짓을 맹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설교말씀에 예수그리스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어느 목회자의 한마디가 떠오른다.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교회나 신자는 병들어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월23일 아침이면 새천년 첫부활 주일을 맞게된다. 예수님의 시신은 부활하고 다시상 죽은 무덤안에 없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부패하고 넘쳐나는 죽은 믿음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그리스도인들만이 이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와 시민을 살리는일에 팔을 걷어붙여 솔선하기를 바란다.

聖市漫評

김승배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하고 능력있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독자투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1970년대부터 매년 수차례씩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초교와 연합예배가 드리고 있습니다.

초교파연합예배는 세인들에게 하나님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는바가 크지만 나뉘는서 가장 기뻐할 예배라는데 그 의의가 더욱 크겠습니다. 기독교예배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개교회와 연합예배 등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지속되는 날까지 예배의 대상은 변할 수 없는 구제주 하나님이어야 하며 예배의 내용과 말이 다를 때 이단문제까지 제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인지 냉철하게 검토해서 과감히 시정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시간에 사자가 초청한 설교목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하나님을 찬양하라!)로 환영합니다' 한다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혼동되어 오게 됩니다.

하물며 경건한 예배시간에 사람을 소개하는등 세속모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예가 허다한것을 오늘날 예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철이라든지 예배에 참석할 출마자와 기한장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듣고 박수까지 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만 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 외견으로는 예배인도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알려주는 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목회자 모임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배시간에는 인사시키지 않기로 하고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시간에 지속적인 인상을 풍기는 순서들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가는 신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신앙이 건강해지고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소개할 때는 한사람씩 한하는 영육의 신선을 하나님과의 유흥무형의 다른 무엇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연합예배의 거름을 건어내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호소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개최
-대회장 김명기감독 준비위원장 임택창목사-

동부연회 김명기 감독(원주제일교회)은 3월28일부터 30일까지 석사감리교회 대성전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대동 1,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와 봉사'를 주제로 22일간의 춘천석사감리교회에서 춘천,홍천,철원 6개지방의 연합으로

개최하게 되며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자 부보고등 현안사항 협의가 있다.

또 김명기 감독 주례로 목사안수식이 있고 은퇴목사 3명에 대한 은퇴찬양식 성역 30년이상 목사 18명에대한 화광식 을 가질 예정이다.

감리회 권역별 부흥선교대회로 불붙이다

감리회 동부연회 선교사업으로 추진되는 권역별 부흥선교대회가 3월19일 저녁부터 22일까지 춘천석사감리교회에서 춘천,홍천,철원 6개지방의 연합으로

열린다. 이날 강준호 목사를 부흥강사로 초청하였으며 6개지방의 소속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게 된다.

교계단신

춘천권역 감리회 선교대회 개최

3월19일 저녁부터 22일까지 석사감리교회에서 강준호 목사를 강사로 초청, 춘천,홍천,철원 6개지방의 연합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지방 차관석사감리사,서지방 권오성감리사,남지방 김명운감리사,북지방 한관감리사

서지방 교역자의회

감리회 서지방 교역자의회가 3월10일 오전11시 서광교회(김치룡전도사)에서 열었다.

강남 늘푸른장로교회 창립

늘푸른교회(윤대호목사)는 교회창립10주년사업의 일환으로 '강남늘푸른교회'를 개척, 3월4일 오전11시 창립예배를 드렸다.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목사)는 3월14일 오전11시 교육관 1층에서 1세~4세 아이를 대상으로 '영아부 예배(아기예배)'를 신선했으며 3월8일부터 4월22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춘천중앙성경교회(윤철중목사)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이란 주제로 3월13일~4월22일까지 계속한다.

춘천제일감리교회(차관석목사)는 교육관전속감사 기념 대부흥집회를 4월9일부터 12일까지 감전도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개최할 예정이다.

우두감리교회(김정원목사)는 3월8일부터 4월23일까지 사순절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순복음제일교회(이기철목사)는 2월27일부터 3월1일까지 고종헌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축복부흥집회를 가졌다.

별빛감리교회(강종목목사)는 2월27일부터 3월1일 '21세기를 준비하는 영성회복성회'를 김관구 목사를 강사로 초청,개회하였다.

동부연회 춘천남지방회의 열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춘천남지방 김명분 감리사(장대교회)는 2월29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석사감리교회에서 춘천남지방회의를 열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 후 회부처리, 고강향장로 추도예배, 장로안수식을 거행하였으며 동부연회 김명기감독의 개회예배 설교와 임택창 목사의 추도예배설교, 유진형 목사의 장로단

수예배 설교가있었다.

이날 안수받은 장로는 이 경(석사교회), 홍주표(남춘천교회), 김부희(광장교회) 3명이며 신장로는 문병용(석사교회), 박종만(성암교회), 김은복(남춘천교회), 김득순(남춘천교회), 엄대성(동원교회), 황병찬(동원교회), 이병식(동원교회) 7명이었다.

춘천성경교회 창립 제28주년 기념예배 드려

춘천성경교회(오승룡 목사)는 3월5일 창립28주년기념 간사예배를 드렸으며 김사 4명(강대부, 최승선, 박희태, 이계경)을 안수집사로 세웠다.

이날 예배에는 교파를 초월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감사와 축복을 드렸으며 성경교단 부흥회장 윤철중 목사(중앙성경교회)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오승룡 담임목사의 집례로 안수식을 거행했다.



정상문 목사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아

동원감리교회 정상문 목사는 3월5일 저녁부터 3월9일 새벽까지 충북 음성군 생곡면 신당리에 있는 춘북연회 신당감리교회(박우영목사)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으며 3월12일 오후7시 본교회당에서 열

린 춘천남지방 남선교회연합회 원원선신 예배에 참석,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엄대성 장로의 사회로 이홍순 장로의 대표기도, 김문수 장로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동정

☆임택창 목사
3월19일~22일 춘천4개 지방 연합 권역별 부흥회 준비 및 3월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59회 동부연회 기획을 수 있도록 회원들의 속박,속박, 교통안내등 당국과 협의하고 춘천남지방 사회 평신도부(송주석주교)와 협의 협회 오자대접을 지방 평신도 단체들이 무료로 대접하기로 했다.

☆차관석 목사
춘천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는 3월6일부터 미국 길버르스연립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으며 10일 오후7시30분 부흥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적인정원' 세미나를 열었다.

☆신성강 목사
연립제일교회 담임목사는 2월24일 오후7시 월드컵 전 강연에서 있는 춘천성서회 시사회에 참석,미국인 사물과 브라운스미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기사와 아라비아 관현 녹화비디오 설명과 설교말씀을 전했다.

☆정경호 목사
C.C.C.춘천대학생교회 대표자는 2월24일 오후 7시 성서회기도회에 참석, 대표기도 하였으며 3월2일 밤 성서회기도회를 주관하고 설교하였다.

☆한 군 권역사
평화감리교회 담임목사는 3월10일 오전11시 지내 리감리교회당에서 있는 춘천권역별 월례회의를 주재했다.

☆김명분 권역사
창대감리교회 담임목사는 2월29일 오전10시 석사 감리교회당에서 열린춘천 남지방회의를 주재했다.

☆권오서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는 김 일부목사와 함께 2월24일부터 3월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타라에 있는 중앙교회 구역회와 늘푸른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귀국했다.

☆박성철 목사
제일성경교회 담임목사는 3월9일 오후7시 30분 성서회기도회에 참석하여 설교말씀을 전하고 합심기도회를 인도했다.

☆박성호 목사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는 2월28일 정오 공군제일교회에서 회시하였다. 3월3일 동해시 중합사회복지관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영철 목사
우두감리교회 담임목사는 3월5일 아침5시 축복 안수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였다.

☆최희선 선교사
한국교회선교단 목사로 활동하면서 춘천제일교회 학교 운영지도를 맡아오 2월13일두란노회의선교회 소속 중국장기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출국했다.

☆이원재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 부목사는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일대일 제자양육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은은 장로
월드비전 춘천사회복지관 장로는 2월24일 평양의지 지주목사 강사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열고 진행하였다. 소년소녀가장등 500세대에 연탄500장씩을 전달하는 사랑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함으로 연탄에 5,000원(주)동남아해운(양정숙회장)에서 회시하였다. 3월3일 동해시 중합사회복지관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영철 목사
본인의 동생에서 성신원 자립생 거취일을 목사님에게 대접하기위해 앞으로는 작업에 정성을 쏟고있다.

☆신성철 안수집사
세계복음화 협의회 남선교회장(소양성경교회)은 3월10일 오후 3시부터 11일까지 유성,포탈사와 피아에서 개최된 제13차 사주총회에 참가했다.

☆김영철 장로
성서신문 명예지판장은 유수영목사를 중심으로 기자들을 발굴하고 봉사 에 신념을 가진 명예기자 를 발굴중에 있다.

☆박영만 장로
장로연합회 총무는 춘천 지방 장로수월제에 따른 자료수집과 교정등 수월 조기발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남진 장로
월드비전 감리회부장은 3월12일~26일까지 한국 월드비전 대표로 SBS방송 보도진과 함께 월드비

전 사업장인 유전다.케나들을 방문하여 현 장실태를 살펴보고 돌아올 예정이다.

☆이영국 장로
성서신문 명예지판장은 유수영목사를 중심으로 기자들을 발굴하고 봉사 에 신념을 가진 명예기자 를 발굴중에 있다.

☆조남진 장로
월드비전 감리회부장은 3월12일~26일까지 한국 월드비전 대표로 SBS방송 보도진과 함께 월드비

전 사업장인 유전다.케나들을 방문하여 현 장실태를 살펴보고 돌아올 예정이다.

☆이영국 장로
성서신문 명예지판장은 유수영목사를 중심으로 기자들을 발굴하고 봉사 에 신념을 가진 명예기자 를 발굴중에 있다.

교회내의 행사준비위원회를 열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김종택 목사
본지 명예회장은 금년1월부터 본지에서 성서만화를 게재하고 있으며 3월1일 구약성서관 작업실에서 저서인 '맛있는 대항항간'을 지휘로 화실을 이진,작품활동에 들어갔다.

일본어 강좌 평신도 수강생 모집
- 4월부터 3개월 매주2회, 50명 선착순 -

춘천일본어 선교회(회장 한관목사)는 3월7일 오후6시30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일본선교회 제7회대회를 위해 평신도 일본어반을 신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기로 결의했다.

- 수강대상자-평신도 50명(점수선착순)
- 교육기간- 4월 첫주부터 3개월(매주2회,목요일 오후7시~9시까지)
- 등록금- 3월13일~3월31일까지
- 수강료- 무료(등록금1인 10,000원)
- 강의 실- 평화감리교회 교육관
- 연락처- 0361-243-5885 / 011-368-5437(김동원 장로)
- 0361-241-5621.5624 (평화교회 사무실)

춘천일본선교회 회장 한관 목사
총무 김진형 장로
조은세 장로

선교회 소식

중고등학교 연합기도성회

3월25일 기독교동아리가 없는 3개 학교(강원중학교, 춘천중학교, 강원체육고등학교)의 동아리 조직과 학교에 예수님의 통치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연합기도회가 춘천시내 20개 중고등학교 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춘천 청소년선교대회 개최

예수사랑운동(발상설 목사)은 춘천 청소년선교대회 개최를 위한 협의회가 4월1일 저녁7시 석사칼리교회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군 부대지배권 및 십자탑 도공공사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최전방 15사단 38연대와 4월초 자매결연식을 갖기로 하였으며 성탄트리 십자탑 권리를 위해 도공공사를 하였다.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세학기 교사 간담회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이무준 회장)는 2월21일부터 25일까지 베드로산교회내 EFP세미나실에서 '세로로 주는 새부대'에 대하여 할 것이니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0강원교회교회를 위한 교사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13, 14일부터 5월23, 24일까지 12주(오후반, 월, 오전반, 화요일)동안 본회 세미나실에서 세수사별 주관교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4월중 춘천, 가평, 철원, 회천, 양구지역

에서 교사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3-1443 /

수신인생을 위한 '봄 미리 전도학교' 개강

예수전도단 춘천지부(김봉욱 목사)는 3월27일(월)~4월1일(토) 오전까지 대안학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예배, 기도, 메시지전달을 통해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건전한 대학생생활을 도우려는 '봄 미리 전도학교'를 개

강한다

문의및신청: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361)252-1128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수원천 C.C.C. 부부생활 세미나 개최

한국내국성신교회춘천지부(정경호 대표목사)는 4월15일 직장인 선교학교 주최로 '부부생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처: 0361)254-5776

우리교회 청소년 교육은 잘 되고 있는가



변석규 목사
(신원교회목사)

춘천지역 일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청소년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조직한 로얄(ROYAL) 선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적인 청소년 사역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1월4일부터 2월3일까지 1개월동안이면 달랑2리에 위치한 선교회에서 도내 영세가정학생(중3 고1) 23명을 대상으로 합숙교육을 실시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사회응용력과 신앙적인 특성이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적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는 기독교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활동성, 순종성, 질서등 사회성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달교육의 커리큘럼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영어, 수학, 종교교육의 특강을 통한 전인교육 그리고 예배, 찬송, 기도를 통한 신앙교육이었으며 대학, 군부대, 교회등을 전이함으로써 사회성을 길러주었다. 좋은 시설에서 한달동안 소일할 수 있을것을 기대한 학생들은 철저한 교육훈련에 적응하지 못하고 1,2주 사이에 귀가하

예수전도단 Target 2020 선교계획 확정

한국예수전도단은 2월21일~28일까지 춘남 호서대학교 대강당에서 간사장기총회를 개최하였고 Target 2020을 선포했다.

2020년까지 예수전도단지부가 없는 세계 22개국과 68개지역을 개척하고 미진 도종족 68개를 일망하고 그 종족내에 교회를 세우기를 목표로 할 것을 결정했다. 춘천지부(김봉욱 대표목사)는 에디오 피아, 탄자니아인들의 동부아프리카와 중국 조선족을 목표로 삼았다.

예수전도단은 (YWAM, Korea)은 국

제 되었다. 합숙생활을 하면서 학과목 교육보다 생활지도에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줄여야하는 체면을 하였다.

나는 몇명의 기독교학생들을 믿고 기대를 걸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했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특수한 환경적 문제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더 이기적이었고 협동성과 양보성, 순종성도 부족했으며 무엇보다도 일반학생들이 더 긍정적이고 협조적이었다. 그들은 생소한 예배시간에도 잘 적응했고 기존신자의 모습으로 부패된 역할을 잘 담당해냈다. 필자는 오늘 기독교학생들의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가정과 교회안에서는 모범적이나 교회의 사회성 특히 공동체 생활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서로 양육하는 일에 교회와 가정은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에 일해야 할 것임이 오나. 오나, 범신론 사상에 비기독교인의 인종교육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들을 양상할 수도 있다는데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다.

(신원교회목사 변석규 목사)

장기기증운동 신장으로 신뢰성 확보

- 강원도 건강진단 지원, 시군 안내창구 개설 -

사람의 장기기증운동 강원지역본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내 많은 성도들의 생생한 참여로 도내 장기기증 실적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시행의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3월7일자 강원도 보건당국은 장기기증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거주 장기기증자를 대상으로 무료 장기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7-15일간 진료비를 지원하도 했으며 또 장기기증 시술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해 입원기간동안 가사를 돌봐주고 강원지역본부 등 민간단체의 인터넷 개설을 지원하여 3월11일부터 도내 17개시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장기기증 안내창

구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법도인 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하고 기증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지원을 확대해 계획하고 있다.

장기기증운동에 강원도와 시군들이 동참하고 지원해 되기까지는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들과 조정된 사무국장의 노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강원도의 지원에 따른 자부담 사업비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모든 교회와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장기기증 강원지역본부에서는 24시간 '빛의전화' 개설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신청전화: 0371) 731-0855 / 011-899-0126 조정된 강원지역사무국장

독자투고

춘천 성시화 위해 後世代를 育成합시다!



저는 어렸을적 主日學校를 다니던때를 가끔 기억하고 주일날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때가 많습니

다. 그때의 신앙교육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자부하고 싶은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한 방을 사용하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에 할아버지께서 자주 일러주시던 중국의 諺語(언어) 중 한귀절이 '有教無類(유교무류)'란 말이 생각납니다.

이 말은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춘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살기좋은 펴워지고 환경이 잘 정리보존된 인성이 착한 도시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약28년이나 꾸준히 이것을 모으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후세대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하겠습

니다. 현재 각 교회에서 하고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체계적인 크리스찬 후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중·고등학교 수준의 '미션스쿨(Mission School)'이 더욱 간절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었기 한번 들었다고 근육이 생

긴다면 그누가 운동을 안하겠습니까? 성경 한번 읽고 마음이 좋아진다면 신앙생활 할 훈련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바로 반복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며 본받아

살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육하면 먼저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교육에 있다고들 합니다.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3퍼센트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 서부터 말씀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고

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춘천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사를 이루기위한 복음전파와 후대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교육을 위해 가진것을 투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춘천기독교장로회총연합회장 이영규 장로

새얼굴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대표간사 김봉욱 목사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책임자로 김봉욱 간사가 2월1일 부임했다.

충신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예수전도단 서울대학사역과 부산지부와 부산DTS(예수재혼련학교), 호주시드니 한인사역을 했으며 국제 예수전도단 호주 캔버라베이스에서 가정사역에(FMS)과 치유사역(IBC)을 수료하는 등 학문과 경험 철저한 믿음을 가진 유능한 인물로써 춘천지부 발전이 기대된다.

그간 춘천지부는 평신도 간사들이 사역을 잘 감당해왔으나 이제부터 대표간사 김봉욱목사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능력있는 사역을 펼치게 될 것이다.

여기 젊은 사역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는 현재 인원에 비해 너무 미흡한 사무실에서 침식과 사역을 함께 해나가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관입함을 위해서가 아닌 보다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침식가능한 사무(공동생활관)와 꼭 필요한 12인승차량(중고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조해주실 뜻이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0361)252-1128



월드비전 춘천이민지원 사업이 2월17일 오전10시 3강당에서 열렸으며 신순철 원장의 사회로 김남철 장로 기도와 박성철 목사의 설교, 이순환 원장의 졸업증서 수여등이 있었으며 어린이집 교사사역이 축기가 있었다.

용천교계소식

▶ 용천의망장로교회(김광섭목사)는 월드비전강원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20일 오전11시 대예배를 마치고 새시대 새천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사랑의 땅 2000'에서 성경공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회원선정회까지 하였다.

▶ 용천의망장로교회(조기산목사)는 3월7일부터 한달간 춘계대예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용천의망장로교회(양명환목사)는 3월9일 성산교회에서 있는 춘천지역성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속초대명교회에서 실시하는 동충문화에 참석했으며 12일 새벽기도 및 주일 낮 가족식구 공동예배를 드렸다.

▶ 창촌장로교회(정용진목사) 청장년회는 이인호 회장과 3월12일 오후 7시 창촌2리주목자도인 이순인(76세, 맹인)씨를 방문, 집안청소와 빨래등 환경정리를 하였으며 매월 1회이성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용천 동지방 장로의 헌신예배 춘천동지방 장로의(전순옥 회장)는 3월12일 오후5시 춘천내면연도교회(이일우목사)에서 헌신예배를 드리고 신년계획으로 헌신예배 2회, 체육대회, 야외예배 1회등 장로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 결정하였다.

▶ 용천동지방 제1의 성가경연대회 용천동지방(이재호 감리사)은 3월4일 춘천내면 창촌초소세 창촌장로교회(정용진목사)에서 일반성도 및 학생회를 대상으로 성가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1개 교회, 14개 성가대 및 학생회가 참가한 은혜로운 성가대회였으며 대회는 2000년 새해에 처음 개최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감리사장-방내교회장가대 대장-중앙교회학생회 금상-창촌교회성가대(이상순 명예기다자단부장)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받은 안인행 장로 부신고등학교원장 안인행 장로는 대전지방법원장 재직시 성서운동과 사역을 위한 운동에 열과성을 다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전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게 되었다.



2000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영적강화 대집회'가 2월14일~15일 오후5시30분 월드비전 3층 대강당에서 있었다.



순복음제일교회(하길목사)는 2월 27일~ 3월1일 까지 고충진 목사를 초청 부흥성회를 열었다.



성서화기도모임은 권오목 선교사(이르헨타나교) 초청 예배 드렸다.

